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16차 세션, 바울서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디모데후서, 첫인사와 마지막인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바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그리고 언어와 문학, 인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본문을 마무리하고 바울의 언어와 그의 서신을 문학으로 보는 관점에서 바울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15, 골로새서 3:12,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라. 서로 참아 주고, 누가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한 조화로 묶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그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부르라.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고 콜로새서 2:20, 3:1, 3:3에서 가르친 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두 가지 측면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죄악적인 행위를 죽여야 합니다(콜로새서 3:5-11).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경건한 특성과 행동을 입어야 합니다(12-17절). 그와 함께 죽는 것은 죄악적인 행위를 죽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와 함께 자라는 것은 경건한 속성과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회중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15절). 사도가 공동체의 평화를 의미하고 개인의 마음 속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함으로써 전달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 하지만 그 개별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인용하자면, 하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조화와 연합을 증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마음과 단일한 몸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평화에 복종하고 회중에서 조화를 증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몸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12절, 4장 13절로 시작하는 특별한 재림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잠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있는 우리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명령의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살아 있는 우리, 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인들은 마지막 일에 대한 이해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 일부가 재림 전에 죽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대천사가 그의 오심을 알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신자들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환영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죽는 모든 자들을 묘사하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는 그러한 죽음이 일어난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위치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죽음조차도 그 연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확정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몇 분 후에 살펴볼 인사와 결론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가 자주 서신 인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의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입니다. 바울은 인간 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 연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확정적이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그와 결합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와의 연합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8, 9. 저는 이 구절을 골랐는데,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서 1:4와 평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보다 덜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두 군데에서만 세상 창조 이전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선택, 에베소서 1:4, 그리고 바로 여기 디모데후서 1:8, 9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에 대한 증거나 그의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목적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지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두 군데에서 일시 이전의 선택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에베소서 1:4).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시대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곳에서 시간 이전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같은 두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 이전의 선택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역에서 담대함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으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그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력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다시 말해서, 나의 번역본인 영원한 시대 전에 주어졌다고 명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는 도구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음 구절에서 확인하듯이, 지금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출현을 통해 나타났으며, 그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하셨다는 조건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머지 언어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차이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백성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단을 계획하시는 시간 이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1:4과 디모데후서 1:9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래의 연합이며, 똑같은 연합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1은, 그러므로 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얻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믿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신뢰하라. 바울은 그의 보조자 디모데에게 사역에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으라고 격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에 끈기 있게 임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에게 인용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을 위치사로 사용하여 은혜를 한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역, 즉 그가 다스리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영역, 그의 왕국, 그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얻으라. 언제나 그렇듯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영역처럼 보이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10,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8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곧 신성하신, 다윗의 자손이신, 곧 인간적인, 내 복음에 전파된 대로, 나는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죄인처럼 사슬로 매이고, 죄인처럼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니, 이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죄수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인용하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만약 그들이 택함받은 자라면, 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선택 교리를 가장 열렬히 가르친 바울은 또한 열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그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포함한 고난을 견뎌내며, 인용문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디모데전서 1:14와 디모데후서 1:1에서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실체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것은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잘 여겨집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조건지어지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는 얻어야 할 구원의 특정한 기독교적 특성을 표시하십니다.

다시 캠벨,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 이 구원에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 땅에서 부활과 영원한 삶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단순히 영원한, 따옴표로 된 단어를 더할 때 이러한 개념에 대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영원한 영광. 우리는 구원에 관해 말하는 바울의 본문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언어, 문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최고의 책을 썼다고 제가 인정했지만, 약 50년 동안은 그의 아주 좋은 책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유일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책입니다. 스메데스의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인용문,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결정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2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시대에, 인용문 닫기, 스메데스. 사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물론, 다른 신약 저자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씁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첫 번째 서신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스메데스가 옳습니다. 바울은 그를 인용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스메데스가 올바르게 말했듯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도"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본문을 살펴본 후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리와 그로부터 이끌어낸 가르침을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바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언어로 인사하는 연합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각조각 언급했습니다. 이제 체계화할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안에서만.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함. 이제 우리는 바울의 언어와 문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인사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개념.

인사에서의 연합. 우리는 바울의 서신 인사에서 절반에 걸쳐 나타나는 연합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서신의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합은 그의 생각에 스며듭니다. 로마서 1:1과 4~6.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였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연합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로마서 16:3과 7~13의 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르키수스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드리파에나와 드리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페르시에게 문안하라.

맙소사, 그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십시오, 로마서 16:3, 7~13. 이 편지를 쓴 데르티오 1세, 로마서 16:22, 맞히셨죠, 주님 안에서 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곧 그들의 주와 우리의 주이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6:19,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6: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이 있기를. 에베소서 1:1 1,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21,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목사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했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자와 집사에게, 빌립보서 1:1. 빌립보서 4: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골로새서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실한 형제들에게. 골로새서 4, 7, 두기고가 내 모든 활동에 대해 말해 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목사이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종입니다. 골로새서 4:17,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다 이루도록 주의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1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 18,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1,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 갇힌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의 서신 13통에 모두 서두와 마지막 인사가 들어 있다면, 인사를 위한 슬롯이 26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연합을 18번, 15번이나 언급하는데, 그 서두와 마지막 인사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서신을 시작하고 마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나 기도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즉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사도의 제시가 이러한 사건들보다 더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는 그의 생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을 말하는 주제와 그림들 사이에서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콘스탄틴 캠벨의 주목할 만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 즉 주해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에 대한 빛을 감사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어휘 의미론, 해석학, 신학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전치사 *in* 또는 *in*의 사용이 유연하고, 맥락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공간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 구체, 영역 또는 영역의 개념이 비유적 사용에서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개인적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며 마지막 결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는 개인적 관련성, 즉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관심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치사 *in*의 유연성에 따라, 때때로 *in*으로 번역되고, 종종 *in Christ*와 그 동의어 표현에서, 우리의 요약은 *in Christ*와 그 동등어에 대한 8가지 이상의 주요 뉘앙스, 의미의 음영, 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막는 데 중요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캠벨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에서 다양한 뉘앙스의 사용을 식별한 데 동의하지만, 위의 마지막 요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의 각 사용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의미 외에도 개인적인 관련성을 전달합니다.

나는 이 개인적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어의 광의적 의미로 분류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어의 광의적 의미와 협소한 의미의 구분을 소개한다. 광의적 의미는 주로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합 외에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협소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넓은 의미에서의 연합과 관련된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결을 전달합니다. 비록 이러한 용법 중 많은 것이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와 뉘앙스를 감상하고 싶지만 숲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는 항상 넓고 간접적인 의미로 연합을 말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리스도 언어의 다양한 주요 뉘앙스를 나열한 다음 좁은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는 텍스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뉘앙스를 포함하려고 하지 않고 3회 이상 나타나는 참조만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뉘앙스에는 대리, 연합, 원인, 도구, 방식, 신앙의 대상, 기독교에 대한 우회적 표현, 영역, 영역 또는 도메인이 포함됩니다. 결론.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전체 책임 성령에 의해 적용된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천합니다.

결론. 바울의 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언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언급의 대부분은 좁은 의미와 직접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지 않고 넓고 간접적인 의미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확하고 유일한 뉘앙스일 뿐만 아니라, 즉, 대부분의 참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확하고 유일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다른 뉘앙스나 의미의 음영이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뉘앙스. 이러한 다양한 뉘앙스와 의미의 음영은 개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양성은 구원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항상 그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여러 다른 사소한 방식들 중에서도 대리자, 연합, 원인,

도구, 방식, 믿음의 대상, 기독교인을 위한 의역, 또는 영역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20개 이상의 주요 뉘앙스 중에서 이 8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행위와 도구성을 보여줍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다른 것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정 행동의 이전 기원을 귀속시킴으로써 행위성과 도구성의 유사한 개념을 구별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대리인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도구로 묘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주도권을 잡고 그의 아들을 통해 선한 일을 성취합니다. 대리인과 도구는 모두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제시합니다(딤후 2:5).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을 묘사합니다.

때때로, 이 연합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시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를 다양한 사역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의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많은 일을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때때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많은 경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소망은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 역할 또는 교회를 언급할 때 형용사나 명사인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영역, 영역 또는 영역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종종 사탄, 죄, 죽음의 영역에 반대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승리자, 우리의 챔피언이신 그리스도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그의 영역으로 옮겨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원수들에 맞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표현들은 의미와 미묘한 차이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에 관계를 확립하는데, 우리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9번의 사건은 좁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들의 뉘앙스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신자들과 공통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30).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어리석음과 약함에 불과했지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와 연합하여 우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고린도전서 1:29, 31). 구원의 적용의 다른 모든 측면과 함께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습니다(고린도후서 5:21).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믿는 자들과 죄인들의 곤경에 참여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믿는 자들은 그분과 그의 구원의 의로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칭의 구절인, 하나님께서 죄를 아는 자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그의 의로움과 연합하여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도에게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여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3:5. 이 원리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인용문,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3:5.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계속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4. 그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용문,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4절.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하고 현대화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면에서 근시안적입니다. 첫째, 성경은 더 큰 관점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개인을 그의 아들과 합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합일은 다른 신자들과의 합일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훨씬 더 큰 관점을 취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실 계획입니다(에베소서 1:10).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것이 이루는 것, 즉 구원을 개인적, 단체적, 우주적 차원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친 미국적 개인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 단체적, 우주적 차원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개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들은 즉시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과거 영원한 계획과 미래의 영원한 목표에 비추어 우리의 지평을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과거, 에베소서 1:4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목적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때가 차서야 일어날 것입니다(에베소서 1:10). 즉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리스도가 재결합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어둠을 지배하는 우주의 권세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합니다(에베소서 6:11, 12).

로마 군대의 갑옷과 무기에 대한 바울의 호소는 흔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야훼와 메시아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사야의 묘사에 대한 그의 호소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인용문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를 입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문,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힘으로 강해지라, 10절에서 인용문 닫기, 그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와의 유대감으로 인해 강해지라고 촉구합니다. 즉, 에베소서 6:10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뛰어난 가치로 인해 조상과 명예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8. 그는 이전의 명예를 손실로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은 쓰레기로 여깁니다, 완곡한 표현, 8절. 왜? 인용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의를 갖기 위해, 빌립보서 3:8, 9.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캠벨은 인용문,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9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의 의를 공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개인적 본질 때문에, 여기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얻는데, 구원의 의를 포함합니다. 이 심오한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인용하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합니다.

지금은 콜로새서 2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콜로새서 2:9, 10.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합류한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된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연합은 본성과 영원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연합은 은혜와 시간적 연합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는 육신의 하나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죄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몸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언어, 아마도 3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이 신성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완전해집니다. 그들은 그분과의 연합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습니다.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는 것과 바울의 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 그 후에 바울의 그림과 주제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와 기꺼이 연합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바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그리고 언어와 문학, 인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